

낙농현안문제 근본원인부터 접근해야...

새해 들어서도 우유수급 문제가 최대의 현안일 수밖에 없다. 남은 우유를 해소하여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 과제야말로 낙농존립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농업계가 망라하여 힘을 모아야 하고 반드시 수급을 안정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낙농가는 어려움에 처해있고, 당장이라도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다. 대다수 낙농가의 경우 정상적인 생산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규모화를 위한 투자가 부채로 남아있고, 현재의 규모정도가 생산목표이거나 혹은 더 키워야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물론 개중에는 급격한 생산증가로 인해 공동의 고통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우유가 남아 수급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이 낙농가의 책임이나 아니냐는 것으로 새삼스레 논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이제와서의 미가 없다고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낙농업계 종사자 모두의 유기적 책임이 없다고 부인



김 인 식 / 본회 전무이사

“

**낙농가와 정부 혹은 진흥회와
의 공방이 오가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는 서로 네 탓 책임공방
을 한다며 비아냥식이다. 근본
문제를 풀자면 근본원인에서부
터 접근해야 함에도 외면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낙농가 단체 실무 책임
자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
면서도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결
코 간과되어서 아니 될 사안임
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원인파악과 함께 상황진단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유파동이 생겨난 이후 이 부문에 대해서는 마치 금기시하는 분위기이다. 낙농가들은 정부나 진흥회의 생산과잉 유도에 기인한 증산결과라는 볼멘 소리이고, 정부는 과거 지시는 덮어두자며 들추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다.

낙농가와 정부 혹은 진흥회와 의 공방이 오가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는 서로 네 탓 책임공방을 한다며 비아냥식이다. 근본문제를 풀자면 근본원인에서부터 접근해야 함에도 외면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낙농가 단체 실무 책임자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결코 간과되어서 아니 될 사안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우선 지난해 우유소비 부진의 주된 요인은 SBS TV 다큐멘터리 '잘먹고 잘사는 법' 방영물이 큰 요인이었다고 본다. 건강문제에 예민한 국민적 심성에다 충격적인 실험결과 등의 보도는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우유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

론 유업체는 이렇다할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평소에는 그래도 낙농문제에 역할을 한다던 유가공업체나 조합들이 언론의 위력 앞에서는 주눅들다시피하여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다.

반대로 채식열풍이 일어나고 채소 특히 유기채소 코너에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동이 났다. 채식열풍에 반비례하여 우유 등 육류 소비는 감소하였다고 한다. 협회의 항의방문과 방송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대응이 있었고, MBC TV로 하여금 별도의 토론회 개최를 주선하여 채식주의와의 열띤 토론회가 있었지만, 소비자로서는 양측 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반응이 있었고, 반감된 우유 소비를 끌어오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유소비 부진의 두 번째 요인은 유가공업체들의 시유홍보 외면이라고 본다. 반복되는 언급이지만, 유가공업체들은 돈안되는 시유에 매력을 잃고 기능성 우유와 가공유 등의 유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종전에 직접 낙농가로부터 집유할 경우 낙농가를 의식해서라도 집유한 우유의 가공처리나 소비선전에 외면할 수 없었지만, 진흥회 설립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졌다.

계약된 물량을 진흥회로부터 인수하는 것 이외의 기대는 사실상 어렵다. 오히려 계속해오던 연장선에서 일부업체를 제외하

고 모조분유 수입은 우유대란 중에서도 계속되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학자들은 시유소비의 한계에 도달하였으니 하며 옹호론에 편승하였고, 일본의 사례까지 제시하면서 더 이상 시유는 소비확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시하여 우울하게 만들었다.

세번째 우유소비 부진의 사유로는 대체 식품의 상대적인 선진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점이다. 각종음료가 판을 치고 소비자의 감각에 맞는 광고로 눈귀를 사로잡는데 비해 우유는 앓아서 팔리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음료나 두유가 매출 급진장을 기록하는데 비해 우유는 안팔린다는 푸념만 가득할 뿐이다.

아예 흰우유는 광고에서 제외된 느낌이다. 겨우 낙농가의 자

조금공익광고가 전부이다. 그나마 유업체는 자조금 조성에는 외면하고 있고, 앞장서야 낙농조합장들은 연일 패를 지어 자조금 반대만이 살길인양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누구를 위한 우유광고인지 누구를 위한 낙농조합장인지 구별조차 혼란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답답한 사람 무물판다고 낙농가만 그나마 돈을 내어 TV공익 캠페인이라도 지속하고 있다. 만약, 낙농가들도 외면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결과가 생겨날 것이다.

자조금광고라도 실시하기에 정부에서도 추가 예산을 보태어 TV광고 확대와 각종 우유홍보 보도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었다. 낙농역사상 2002년도만큼 TV광고나 홍보프로가 많았



던 해도 없었을 정도이다. 불황의 심각성을 말하지만 이러한 홍보노력마저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새해에는 참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고, 대책역시 조기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정부에 누차 건의하였고,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제도적인 소비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 확대와 우유용량 확대에 검토만 하고 있다는 답변이 중요하지 않다. 실행에 옮겨지도록 해야 한다.

또 포기낙농가의 젖소를 수매하여 도축처리하는 바이아웃(Buy Out)제도 역시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 미국이 실패했다며 서투른 판단만으로 외면하는 당국자의 오만함을 털어버려야 한다.

남는 우유를 적게 생산하도록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의 과제라고 본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쿼터제든 그것은 낙농가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소비량이 많으면 남는양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적게 남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을 기울이고, 낙농가에게 방법을 선택하라고 해야 한다. 생산과잉을 유도한 사실은 덮어버리자고 한들 우유가 남는 한 덮어지지 않는다. 대가축인 젖소는 이미 2~3년전부터 생산성 향상 기술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개량되어 있다. 대가축 특성에 맞게 장기적 대책으로 내다보고 낙농가를 지도해야 하고 대책 또한 중장기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불안해 있는 진흥회 낙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흥회 존립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가장 전문화되어야 할 조직에 가장 비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생겨난 문제라면 기능에 맞게 쇠신시키거나 본래의 의도에 맞는 기구로 개편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고작 진흥회 탈퇴 농가를 성토하는 정도의 집유조합장 결의를 유도해서 명줄잇기에 급급하는 정도라면 존재가치 여부를 재점검해야 옳다고 본다.

우리 낙농가 역시 위기 상황에 맞는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잉여원유차등가격제로 제값조차 못받고 감산으로 고통을 받는 등의 사태가 낙농가의 단합과 일체감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지만 내일의 안정을 위한 일시적인 고통으로 보아 조금씩 양보하여 감산으로 낙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소비홍보에도 역시 동참해야 한다. 낙농가가 나서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단합할 때 힘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낙농가가 나서서 낙농가 조직을 흔드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고는 힘도 형성되기 어렵고 정부정책도 받아내기 어렵게 된다. 낙농가의 고통만큼이나 단합도 강화하여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제안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런 단합된 모습에서 새해 우유수급의 조기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필자연락처 : 02-588-7055⟩



♠ 수리폼엔 신토불이! 수슈도 신토불이! ♠